



10월 14일 2016

용서의 주님

아세르 인트레이터



유대 전통에 엘룰월 시작부터 티슈레이월 10일 욘 키푸르까지 40일은 회개와 용서의 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용서라는 뜻의 "슬리훗" סליחות 이라는 특별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한 기도문은 용서의 주님이라는 뜻의 "아돈 하슬리훗" אדון הסליחות 이라고 불립니다. 이 기도문의 각 구절은 히브리 알파벳의 각 글자 순서대로 시작합니다. 그 첫 네 구절은 이렇습니다:

"용서의 주님, 마음을 시험하시는 분, 깊은 것들을 드러내시는 분, 공의를 발하시는 분 ..."

각 연 다음에 오는 후렴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이 기도시는 보통 노래로 불리는데요, 세속적 유대인이든 종교적 유대인이든, 세파르드 유대인이든 아쉬케나지 유대인이든, 현대 이스라엘인들 가운데 그 멜로디가 꽤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누구든지 언제 어느 때든 회개하고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용서받는다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복음의 영광입니다! 이런 반응들이 모든 기도와 믿음의 기초를 이룹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회개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회개와 용서는 우리의 영적 여정의 두 "발"입니다. 여기가 우리 믿음이 "현실과 맞닿는" 곳입니다.

예슈아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 마 6:12.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본적이고, 단순하고, 분명합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용서를 고안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용서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이 두 단계, 회개와 용서를 실천하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더 많은 이들이 완전한 용서와, 평안과, 예슈아의 완전한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할 수 있음을 알게 되도록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억하고 중보하도록 합시다!

요약: 나팔절 연합예배



금년 예루살렘에서의 나팔절(음 하테루아) 예배는 상당히 성공적이었고, 거의 모든 사람이 정말 역사적인 돌파를 경험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10월 1일 토요일 밤에 참석한 이들 중에는 6-7개 아랍 회중과 9-10개 유대인 회중에서 온 대표들도 있었습니다. 파빌리온 주강당이 가득 찼습니다.

이 예배는 아랍 기독교인들과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합동으로 인도했는데요, 강단에서는 아랍어와 히브리어로만 진행했고, 열방에서 온 분들을 위해 헤드폰 통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현지 언어뿐만 아니라 합동으로 인도한 것은 그 자체로 돌파였습니다.

저희는 아랍 찬양과 히브리 찬양을 섞어 거의 한 시간 동안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 다음 아랍 목사님들과 유대인 목사님들이 강단에 나와 함께 손을 잡고 즉석에서 반 시간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랍어로, 그리고 히브리어로 짧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함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마 23:39)를 외치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저희는 세 가지 특별한 영적 목표 성취에 진전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1. 연합: 예루살렘의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의 협력으로, 전 세계 메시아의 몸에 걸친 화해를 이루는 정렬의 새로운 기준이 세워졌습니다(요 17장).

2. 왕국: "찬송하리로다 주여"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다..."(계 11:15)를 외침으로, 주님의 재림을 환영하기 위해 새로운 차원의 영적 권위가 선포되었습니다.

3. 계시: 우리가 성경에 정해진 거룩한 날에 모여 나팔을 불 때 마지막 때에 관한 새로운 차원의 예언 계시가 풀어졌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기도하며 나팔을 불 때 우리는 하늘에서도 반응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서거한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전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세계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다음 날 우리가 모였던 것은 우연 그 이상 같아 보입니다. 페레스 전 대통령은 분명 현대 이스라엘에 위대한 역사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수도에서 영원히 다스리실, 왕 중의 왕, 메시아 예수아를 기리기 위해 모였던 것입니다.



이번 겨울 2016년 12월 1일부터 2017년 1월 25일까지, 모든 연령대의 영어구사 믿는 이들을 대상으로 우리 친구들이 주최하는 8주 동안의 집중 제자훈련이 [예루살렘 힐즈 인](#) 에서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정기 예배, 기도, 말씀 시간에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리바이브 이스라엘](#) 팀과, 북부 이스라엘에서는 [리턴 미니스트리](#) 와 함께 그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현지 메시아의 몸을 섬길 것이고 매주 이스라엘 전역의 여러 곳으로 답사도 갈 것입니다.

참가비 2,000 달러는 기숙사형 숙소, 매끼 식사, 이스라엘 내 교통비, 매주 답사 입장료를 포함합니다. 프로그램 시작은 금방 다가오고, 남은 자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더 알고 싶으시거나 신청서를 요청하고자 하시면 이 주소로 연락해 주십시오: info@jerusalemhillsinn.com

[여기 초청 동영상을 보십시오.](#)

예슈아 하이 TV 보급을 도와주십시오



예슈아의 복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저희는 이스라엘 내 여러 메시아닉 사역단체들이 제작한 프로그램을 24/7 (매일 24시간) 인터넷으로 방송하는 예슈아 하이 인터넷 TV를 시작했습니다.

이 채널을 계속 보급하기 위해 저희는 저희 페이스북에 “좋아요” 클릭 수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 에 방문하셔서 좋아해 주시고, 여러분의 친구들도 초대해 주십시오! 저희 목표는 다음 달에 2,000회의 “좋아요”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역과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 날짜를 저장해 두세요: 2017 바룩 하바 이스라엘 투어



격년으로 있는 바룩 하바 중보기도 컨퍼런스와 투어(2017년 5월 9-18일)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마감 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세요!

이 독특한 일정은,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여행하실 때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믿는 유대인 단체들인 자비의 장막, 리바이브 이스라엘, 티쿤 인터내셔널 사역과 연결시켜 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마련되었습니다. 전문 가이드 외에도 저희 사역팀 지체들이 버스와 유적지들에 여러분과 함께 가서 말씀도 가르치고 교제도 나눌 것입니다.

정보를 더 원하고 신청하고 싶으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한국어로 된 상세 안내를 원하시면 korea@reviveisrael.org로 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일시: 2017년 5월 9-18일

비용: 1750불(2회 분할납부 / 항공편 별도)

주요일정

May 8th (Mon): 인천 출발-이스라엘 하이파 단 피노라마 호텔 도착

May 9th (Tues): 자비의 장막교회 방문

May 10th (Wed): 갈릴리 일대

May 11th (Thurs): 하이파-샤밧찌온(레온 마쥘 교회), 므깃도

May 12th (Fri): 약고, 아셀의 추수교회(가이코헨)

May 13th (Sat): 자비의 장막 안식일 예배

May 14th (Sun): 쥘포리, 나사렛, 가이사라

May 15th (Mon): 예루살렘-리바이브 이스라엘, 야드 바셈

May 16th (Tue): 네게브- 쿨란, 탈 아리드 등

May 17th (Wed): 예루살렘- 서쪽벽 등

May 18th (Thurs): 예루살렘- 겿세마네, 축하행사로 마무리

May 19th (Fri): 인천으로 귀국